

## 最近 日本에서의 原子力輿論動向

3 일본에서는 원자력에 관한 여론조사가 기관에서 실시되어 그 결과가 발표되고 있 조사기관에 따라 각각 설문이 다르므로 을 비교검토하여 여론 전체의 경향을 파악 는 어렵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일본에서는 핵개발에 대해서 불안과 경계심이 고조되는 케, 한편으로는 에너지의 확보상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항상 반수 이상을 차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88년 1월 3일에 공표된 총리부의 조사에서 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약간 불안스러워 걱정하 고 있다」는 대답이 85.9%나 되었다. 그러나 또 한편 원자력발전의 향후 비율을 「적극적으로 증 가시켜 가는 것이 좋다」가 6.7%, 「신중하게 증 가시켜 나가야 한다」가 50.1%로 합계 56.8%였 다. 또 「앞으로 원자력발전이 주력발전이 된다」 는 대답이 60.6%였다.

그러나 이 조사는 1987년 8월에 실시된 것이 어서, 그 무렵에는 아직 현재와 같이 원자력에 대한 대중적인 반대운동이 일어나기 전의 일이 었다. 그래서 현재의 심한 원자력논쟁하에서 실 시된 두 여론조사, 朝日新聞社(1988년 9월 27 일 발표)와 NHK(1988년 11월 4일 발표)의 조 사결과가 주목된다.

### 朝日新聞社의 輿論調査結果

朝日新聞社의 조사는 설문이 모두 8개 문항이

있는데, 그중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데 찬성입 니까, 반대입니까」의 물음에 대해서 「찬성」이 29%, 「반대」가 46%였다.

이전의 조사에서는 「찬성」이 「반대」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는데 1986년의 체르노빌사고후의 8월 조사에서 역전되었고, 이번 조사에서 同紙 는 그 차이가 더 커진 것을 중대시하여 해설기 사를 게재하였다.

다음에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전에 불안 을 호소하거나, 원자력발전을 재검토한다는 동 향이 각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동향에 관심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가 59%, 「없다」가 35%였다. 이에 대해서 는 다음의 NHK조사와 연관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나 전력회사는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과 안전성 문제에서 당신이 궁금한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물 음에 대해서 「하고 있다」가 7%, 「하지 못하고 있다」가 76%로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일본의 원자력발전소에서 큰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느끼고 있다」가 62%, 「느끼 고 있지 않다」가 30%였다.

더욱 「원자력발전은 기술과 관리 여하에 따라 안전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 고 생각합니까」에 대해서 「안전한 것이 될 수

있다」가 32%, 「어찌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가 56%였으나, 「일본의 원자력발전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해서는 「현상태로 한정시킨다」가 55%, 「줄이는 편이 좋다」가 17%, 「중지해야 한다」가 10%, 「늘려야 한다」가 9%였다.

## NHK의 輿論調査結果

NHK의 조사에서는 설문이 모두 4개 문항이었는데, 그중 「원자력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가 7.2%,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가 52.7%,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된다」가 19.4%, 「중지해야 한다」가 11.1%였다.

이것을 과거의 조사와 비교하면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된다」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가 약간 줄었고, 「중지해야 한다」가 약간 늘었으나,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과거 6년간 항상 반수를 넘고 있으며 이번에도 큰 변화는 볼 수 없었다.

다음으로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가 4.9%, 「굳이 말한다면 안전한 편이다」가 21.8%, 「굳이 말한다면 위험한 편이다」가 45.5%,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가 19.7%로 이 조사에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나 전력회사가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해 데이터를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개하고 있다」가 2.8%, 「굳이 말한다면 공개하고 있다」가 14%, 「굳이 말한다면 불충분하다」가 46.5%,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가 25.0%였다.

이것은 朝日의 조사에서 정부나 전력회사가 원자력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매우 많았던 점과 함께 생각해 보면, 지

금까지 추진측이 진행해 온 계몽내용과 일반시민이 궁금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금까지의 계몽이 충분히 시민에게 골고루 미치지 못한 것일까, 또는 수용하는 측이 듣지를 못한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추진을 위해 사정이 나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등 불신감에 의한 것일까, 이 대답의 근본 원인을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朝日의 조사에서 원자력을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대답이 59%였는데, NHK조사에서는 이와 관련있는 설문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해 반대운동이 각지에서 활발화되고 있는데, 이런 동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이 있었다. 그 대답은 「관심이 있고, 공감할 수 있다」가 27.6%, 「관심은 있으나 공감할 수 없다」가 47.7%, 「관심없다」가 16.8%였다.

이 설문은 NHK의 조사에서 처음으로 제시된 것이어서 前回와 비교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 結 果

NHK의 조사결과는 라디오·TV의 뉴스로 몇번 전파되었을 뿐이므로 보고, 듣지 못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朝日의 조사에 대해서는 同紙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여 보도하였으므로 일반의 반응이 컸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신문사(讀賣)가 이 조사의 설문을 비판하였다. 이 기사에서는 「어떤 기사가」로 되어 있었으나 내용을 보면 朝日의 조사에 관한 기사였다. 그 주된 내용은 「원자력에 찬성이냐, 반대냐」 「불안을 느끼는가」라고 질문 받으면, 원자력에 100%의 신뢰가 없는 현상황에서는 「반대」 「불안」의 대답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더 종합적인 에너지문제 가운데서 그 견해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朝日의 조사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의 수준 정도로」가 55%였던 점과, NHK의 조사에서는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가 반수 이상으로 과거의 조사와 별로 다르지 않은 점에서 생각하면, 불안을 느끼면서도 사용해야 한다는 일보 물러선 곳에서 냉정히 보고 있는 사람도 상당히 있는 것이 틀림없는 것 같다.

단 한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朝日의 조사에서 「원자력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험성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56%나 있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원자력을 안전하게 사용할 능력이 없으니까 중지하자는 말이다.

TMI사고와 체르노빌사고가 그것을 증명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인간에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결정하여 영원히 연구, 개발, 사용을 중단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

## '89會計年度 原子力豫算案에서 PA對策 대폭 強化

일본과학기술청의 1989회계년도 원자력관계 예산은 일반회계와 電源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816억4천만엔(前年度에 비해 3.7% 증액)이 되어, 거의 모든 정책·사업·계획을 확보했다.

1989회계연도에는 원자력을 포함한 과학기술 홍보의 충실화를 비롯해, 動燃의 FBR 원자로 「몬주」의 건설이 마무리단계에 이르렀으며, 原研이 구상한 고온공학시험연구로의 건설이 시작된다. 이밖에 原研과 理研의 大型放射光(SOR) 施設의 설계에 착수한다.

1989회계연도 예산에서는 최근 새로운 전개를 나타내는 반원자력운동에 대응하여 홍보예산을 약 19억엔으로 대폭 증가시켜 팜플렛, 매스 미디어 등에 의한 PR 및 과기청의 강사파견제도(PR캐러밴隊) 등 一般大衆의 퍼블릭·악셉턴스(PA)대책을 강화한다.

또 이에 더하여 IAEA와 OECD/NEA에 국제기관 각출금을 새로이 계상, 국제수준에서의 PA활동을 추진하는 등 홍보체제의 충실에 중점을 두고 있다.

### 通産省도 弘報強化에 重點

日本 통산성의 1989회계연도 원자력관계 예

산안은 일반회계 11억3천2백만엔(전년도에 비해 7.7% 증액), 전원특별회계 다양화계정 273억2천만엔(전년도에 비해 1.7 증액), 전원특별회계 입지계정 1,420억 8천5백만엔(전년도에 비해 17.1% 증액, 과기청, 원자력 이외 포함), 재정투융자 1,788억엔(개발은행 원자력범위내, 金鑛事業團分)으로 되어 있다.

이번의 예산안은 최근의 원자력비판운동의 동향에 입각하여 퍼블릭·악셉턴스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원특별회계의 전원입지 추진조정 등 위탁비가 1988회계년도의 15억4,900만엔에서 28억 8,800만엔으로 증가한 것을 비롯해 핵연료사이클관계 추진조정 등 위탁비(2억 8,900만엔 → 22억 5,300만엔), 홍보안전 등 대책교부금(9억 4,100만엔 → 14억1,900만엔)도 모두 증액되어 대책이 강화되었다. 강연회, 강사파견 등을 통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 안전성에 대해 전국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밖에 전원입지계정에서는 원자력발전시설 등 주변교부금에 대해 기업을 위한 교부단가를 倍增하여 기업유치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電力移出縣 등 교부금에 대해서도 원자력발전을 特別割増으로 하여 입지추진을 도모하도록 결정하